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 ①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 ②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보은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유교의 가르침을 모두 배척하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
- ④ 서양의 종교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⑤ 후천 개벽이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덕과 악덕은 이성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만 덕과 악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 공감은 우리에게 사회의 이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타인이 속한 사회의 이익에 대해 확장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보 기 >

- ㄱ. 덕과 악덕의 구별은 감정에 기초한다.
- ㄴ. 이성은 도덕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 ㄷ. 공감 능력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ㄹ. 사회 전체의 이익을 산출하는 행위는 시인(是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뉘어진다. 지성적 덕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등이 있고,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품성적 덕은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로 용기, 절제 등이 있고,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 ① 중용은 모든 행위와 감정에 존재하는가?
- ②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인가?
- ③ 지성적 덕은 진리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하는가?
- ④ 품성적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가?
- ⑤ 중용에 따른 행위는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가?

4.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노예는 실질적 간섭이 아니라 지배에 의해서 본질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노예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 보 기 >

- ㄱ. 비지배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보장된다.
- ㄴ.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이 있어도 비지배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 ㄷ. 간섭받지 않는 노예는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굽은 나무는 반드시 댈나무*를 대고 썬서 바로잡은 뒤에 곧아지며, 사람의 악한 본성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을 뒤에 다스려진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을: 우산(牛山)의 나무들은 일찍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들을 베어대니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마치 도끼로 나무를 베어 버린 것과 같다. 사람에게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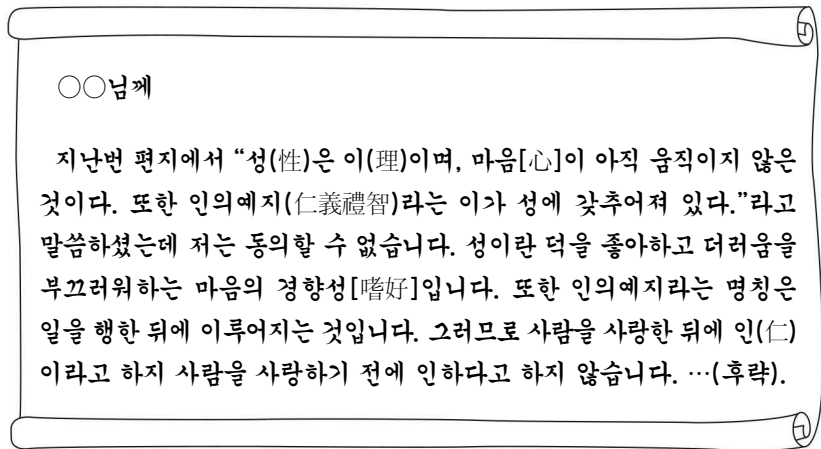
*댈나무: 휘어진 나무를 바로잡기 위해 대는 나무

- ① 갑: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법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② 갑: 인위적인 노력[偽]으로 도덕적 인식 능력을 생성해야 한다.
- ③ 을: 마음을 수양하여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아야[求放心] 한다.
- ④ 을: 대인(大人)만이 인의의 마음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 ⑤ 갑과 을: 소인(小人)도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덕의 발현을 위해 일체의 욕구를 없애야 한다.
- ② 사덕을 실현할 수 있는 본성은 동물도 지니고 있다.
- ③ 사덕은 선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④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이다.
- ⑤ 사덕은 수양을 통해 획득된 사단을 파악하는 시초가 된다.

7. 현대 서양 사사가 갑, 고대 서양 사사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 정직, 근면, 절제 등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고정된 목적이나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에 따른 질적 변화의 방향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을: 정의롭고 사려 깊으며 고상하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 ① 갑: 지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② 갑: 도덕적인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과는 무관하다.
- ③ 을: 정의롭게 사는 것과 즐겁게 사는 것은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다.
- ④ 을: 즐거움은 좋은 것이므로 모든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의는 그 자체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절대적인 목적이다.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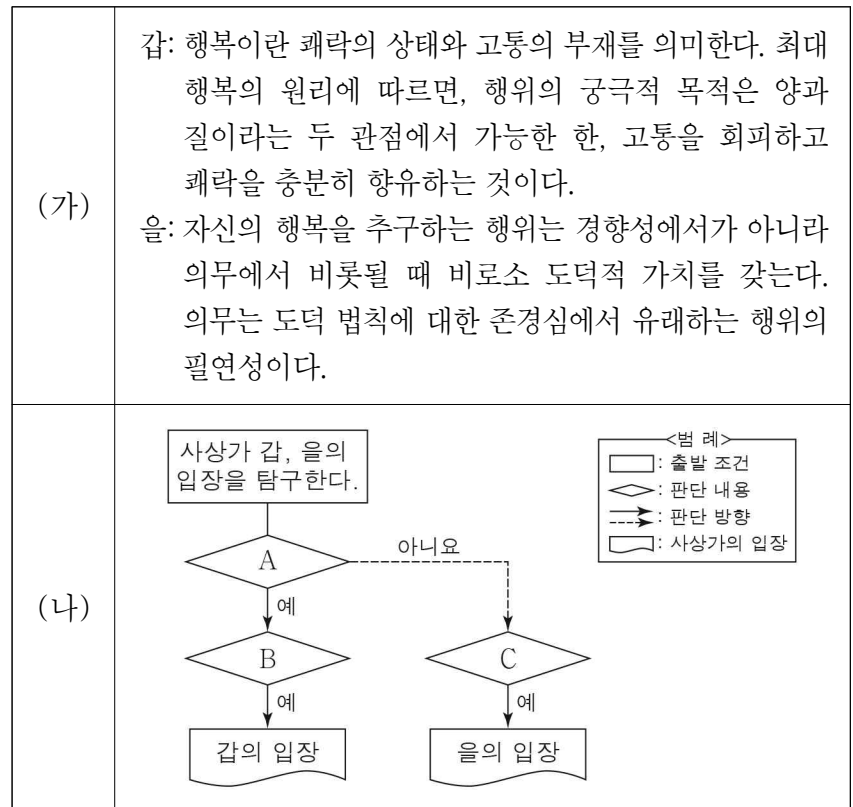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가 있다. 괴로움[苦]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 원인[集]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滅]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에 대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만일 비구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한결같이 닦았다면, 그는 애욕을 끊고 무명(無明)에서 벗어날 것이다.

< 보 기 >

- ㄱ. 괴로움은 태어남[生]이라는 조건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 ㄴ. 사물에 대한 집착은 무명과 이로 인한 애욕으로 생겨난다.
- ㄷ.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불변성을 자각해야 한다.
- ㄹ.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윤회(輪廻)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의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 ㄴ. A: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도덕적일 수 있는가?
- ㄷ. B: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하는가?
- ㄹ. C: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우리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물들이 목적을 향해 작용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물들은 어떤 존재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 없다.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을 향해 질서 지어 주는 지성적 존재가 바로 신(神)이다.
- 우리의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도출된다. 인간이 자연적 성향으로 가지는 모든 것은 이성(神)에 의해 선으로 이해되고 추구의 대상이 된다. 그 반대는 악으로 이해되고 회피의 대상이 된다.

< 보 기 >

- ㄱ. 신의 존재 증명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ㄴ. 인간만이 자기 생명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 ㄷ. 인간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ㄹ. 인간은 신의 의지로 정립된 법칙을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참됨과 허망함의 두 문[二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일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두 문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진여문(眞如門)을 말하고 둘째는 생멸문(生滅門)을 말한다.
을: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박에 깨달았어도[頓悟], 오랫동안 쌓인 습기(習氣)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닦아[漸修] 공(功)을 이루어야 한다.

- ① 갑: 일심에서 볼 때 진여와 생멸은 서로 다르지 않다.
- ② 갑: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오랫동안 쌓인 습기가 있으면 본성을 직관(直觀)할 수 없다.
- ④ 을: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 번뇌를 소멸시켜야 한다.
- ⑤ 갑과 을: 종파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행복[至福]은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이란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에 불과하다.

- ① 최고의 행복은 유한한 실체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② 신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 원인이다.
- ③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 ④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 ⑤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군자는 이름을 바로잡아야[正名] 한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르지 않고,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악(禮樂)이 일어날 수 없다.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공정하지 않고 백성들은 몸 둘 곳조차 없게 된다.
을: 성인(聖人)이 무위(無爲)하면 백성은 저절로 변화되고, 성인이 고요하면 저절로 바르게 된다. 또한 성인이 일을 꾸미지 않으면 백성은 부유하게 되고, 성인이 무욕(無欲)하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하게 된다.

- ① 갑: 도덕과 예의보다는 형벌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② 갑: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좇아야 예악이 바로 서게 된다.
- ③ 을: 백성이 무지하고 무욕하면 무위의 다스림이 불가능해진다.
- ④ 을: 제도와 규범이 많아질수록 백성은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다.
- ⑤ 갑과 을: 도(道)를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14.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인(至人)은 신비스럽다. 거대한 높이 불타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황하(黃河)나 한수(漢水)가 얼어도 그를 춥게 할 수 없고, 사나운 벼락이 산을 쪼개고 폭풍이 바다를 뒤덮어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四海) 밖에 노닌다. 생사(生死)의 문제도 그를 바쁘게 하지 못하는데, 이해(利害)의 문제 따위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지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까?</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 ①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합니다.
- ② 일체의 분별적 관념을 잊어야 합니다.
- ③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 ④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 ⑤ 인의(仁義)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15.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풀 한 포기과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사물은 모두 이치[理]를 가지고 있다. 어찌 풀과 나무라고 해서 그 이치를 궁구할 수 없겠는가? 학문의 길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格物]이다.</p> <p>을: 풀 한 포기과 나무 한 그루에도 이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모두 궁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치는 오직 마음에 있으니, 마음의 바르지 못함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바로잡아야[格物]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과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div>

- < 보 기 >
- ㄱ. A: 도덕적 삶과 실천에는 선후(先後)가 있다.
 - ㄴ. A: 풀과 나무의 이치는 마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 ㄷ. B: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극복해야 한다.
 - ㄹ. C: 내 마음의 이치인 양지를 사물에 실현해야[致知格物]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한국 유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理)와 기(氣)가 결합하여 태어난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서로 발(發)하여 작용[用]하는 것이다. 이와 기가 서로 발하니 [互發] 각각 주(主)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따르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 한 물건과 같다. 이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므로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 또한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타게 된다.

- ① 갑: 이는 기질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
- ② 갑: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은 사단(四端)이다.
- ③ 을: 기는 개개 사물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드러난다.
- ④ 을: 이는 발하는 것이며 기는 발하게 하는 근거이다.
- ⑤ 갑과 을: 이는 형체와 운동성이 없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다.

17. 현대 서양 사사가 갑, 고대 서양 사사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신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용기를 지니지 못하는 자는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신은 단독자인 인간에게 “너는 절망하든지 믿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을: 너는 극작가의 바람에 의해 결정된 연극에서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은 신의 뜻이며, 너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연기해야만 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 ① 갑: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절망을 온전히 극복하게 된다.
- ② 갑: 선택의 상황에서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 ③ 을: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을: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자연적인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격적 존재인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18.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인간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것을 의심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이다.

- ① 갑: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참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로막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 ③ 을: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여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해야 한다.
- ④ 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 ⑤ 갑과 을: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19. 다음은 사회사사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입법권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공선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입법권은 신탁(信託)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할 때는 시민이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시민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입니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일반 의지의 표현입니다. 법은 일반 의지의 공인된 증서이기 때문에, 입법권은 대신 행사될 수 없습니다.



갑



을

< 보 기 >

- ㄱ. 갑: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 ㄴ. 갑: 시민은 계약을 위반한 입법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 ㄷ. 을: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정부는 시민으로부터 법의 집행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사회사사가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국가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든가 또는 현재의 왕이나 통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진정한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그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이 섬의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 ① 갑: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인(哲人)이 통치한다.
- ② 갑: 방위자와 생산자 간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③ 을: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 활동이 금지된다.
- ④ 을: 물자가 풍족하여 물품 생산을 위한 노동이 불필요하다.
- ⑤ 갑과 을: 누구도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